

조계종, 포살법회 정례화한다

조계사 올해부터 月 2회 시범 봉행...결계록 발간 추진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종단 4대 비전 중 하나인 포살법회 정례화 및 결계록 발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은 올해 종단 슬로건을 '포살의 생활화, 수행하는 종단'으로 삼았을 만큼 포살법회 정례화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포살은 대중들이 보름과 그믐마다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이 계율을 범한 것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포살법회를 종단 차원에서 정례화하겠다는 것은, 계율을 대한 인식과 종단의 정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 첫 발걸음으로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은 새해부터 매달 음력 초삼일과 보름에 포살법회를 열기로 하고, 1월 8일 첫 법회를 봉행했다.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은 포살과 자자를 통해 수행풍토를 정착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계사가 시범적으로 포살법회를 월 2회씩 봉행하며 참회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포살법회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포살법회 정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가 1월 8일 새해 첫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실무위원회를 구성, 포살법회 정례화 방안과 관련 법령 보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월 2회 포살법회를 실시하고 이를 점차 전 사찰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완역한 <범방경 포살본>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계종은 수행가풍 점검을 위한 <결계록> 발간도 추진 중이다. 결계(結界)란, 결계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정하고 그곳을 수행 도

장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결계록은 종단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안거기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한 결계를 묶은 자료집을 말한다. 종단은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수행이력과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관 스님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행

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 특강을 열고 종무원들에게 포살법회와 결계록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단의 총림·선원·강원 등에서는 결계전통이 존속되고 있지만, 사찰이나 포교당 등 개별 수행처에 있는 구성원들은 여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결계록 발간은 종단 구성원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긴장감을 갖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앞으로 각 교구본사들이 소속 대중의 결계를 작성하고, 종단은 이를 1년에 한 번 묶어 책으로 펴내게 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 스님은 "포살은 승가구성원에 있어 소중한 의무이며, 승가는 결계 내에서만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포살법회 정례화와 결계록 발간은 승가대중의 의무와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사찰 수목장림 면적제한 문제 있다”

조계종, '장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검토회의 마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7년 12월 24일)에 대해 조계종은 어떤 의견을 피력할까? 복지부 의견제출 마감 시한 1주일 앞둔 1월 7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종단 관계자와 사찰 수목장림 실무자, 학자들을 초청해 의견 개진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일 불교정책기획단 집행위원은 "수목장림 허용 면적이 법인과 종교단체가 10:1 비율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기남 사무국장(영천 은혜사도) "기존 산림을 이용한 수목장림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참석자 대다수 사찰 수목장림 면적 제한을 중점으로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목장림은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와 그 가족에 한해 1만㎡(약 3000평)로 규제된다. 또한 전통사찰법의 규제를 받는 해인사, 범어사, 은해사 등 820여개 전통사찰들은 5000㎡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석암 실장(강화 전등사)은 "면적이 아닌 그루(木) 개념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명근(동국대 강사)도 "단순히 면적만 늘려 달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찰 수목장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야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택진 교수(장원대학 장례지도)의 "이웃종교의 견제는 물론 이권·급진

이익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개정요구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지적처럼 개정 수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등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불교계가 초기부터 허용면적 확대안을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치밀한 준비로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종단 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결국 교계가 내놓을 수목장림 허용 면적 확대안이 수용되려면 사찰 수목장림이 사찰문화재 보호는 물론 산림 보전에 보탬이 된다는 공감기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시각이다.

한편 회의가 끝난 뒤 한 참석자는 불교계가 장례문화 중 최종 과정인 봉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업적·편의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 장례문화 전문가는 "교계가 납골 봉안기수에 집착하던 수목장림 면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10여년 납골당(봉안당) 사례에서 보여준 문제점이 현재에도 답습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수목장림 허용 면적 및 한 제곱미터보다 화장 예외 조항이었던 사찰 다비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견제출시 해당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성 기자

체험형 템플스테이 문화상품 선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개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이 한해 7만여 명에 이르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발우공양 목수저세트와 108염주 만들기 체험 세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발우공양과 염주 만들기 체험 후 목수저와 염주를 참가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제품 중 일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도록 해, 교계 복지단체 및 장애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발우공양 목수저세트는 목수저와 오관개가 새겨진 수저집으로, 염주만 들기 체험세트는 염주알과 염주줄, 발원문을 적을 수 있는 원력카드, 보관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미정이다. 여수령 기자

봉은사서 설우 스님 '선요' 강의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1월 16일부터 3개월간 '수요아간법회 설우 스님의 선요(禪要)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봉은사 법당에서 진행된다.

<선요>는 중국 고봉 대사가 '선의 요제'에 대해 설명한 책으로, 전국 강원에서 기본교육 교재로 삼고 있다.

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은 현재 조계종 교육원 교육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02)3218-4812

“천을 타보는 스키 신기해요”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장애아 20명 대상 스키캠프

“난생 처음 스키를 배우다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욱)은 1월 9-10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편린(Fun·Fun)스키 캠프'를 마련, 장애아동 20명이 눈밭에서 스키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편린 스키캠프는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청소년 테마 캠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애아동들의 스키캠프는 위험 부담이 크다.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아동들보다 몇 배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는 시설장애아동들도 겨울철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스키캠프를 감행했다. 여기에는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자 10명의 힘이 컸다.

이 중 자원봉사자 이광근(22)씨는 “아이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썼다”며 “아이들이 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기분이 좋아져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편린 스키캠프에서는 스키강습 외에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한 치료레크레이션도 진행됐다. 김경진 기자

아동들도 겨울철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스키캠프를 감행했다. 여기에는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자 10명의 힘이 컸다.

이 중 자원봉사자 이광근(22)씨는 “아이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썼다”며 “아이들이 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기분이 좋아져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편린 스키캠프에서는 스키강습 외에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한 치료레크레이션도 진행됐다.

군장병 수행 지도 지침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원

록 도와준다.

총 8회에 걸쳐 '집중표에 집중하기' '망상의 개수 세기' '음악소리에 집중하기' '호흡 지켜보기' 등의 수행과제를 실천하고 좌선을 익히게 된다. 또한 15분간의 잔상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행일지 쓰기와 수행담 나누기 등을 통해 수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자료집 <군장병 불교수행 프로그램>에는 각 처별 지도방법과 진행순서, 집중표를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도록

군장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군장병들이 수행의 기초를 닦고 참선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담은 지침서(사진)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원(실장 도신)이 개발한 불교수행 프로그램은 군장병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 참선과 수행의 기초를 닦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참선의 가치와 목적을 군생활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끌어주는 한편, 집중표를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도록



준비사항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게 했다.

고명석 포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군중교구와 협력해 군법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 프로그램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며 “일선에서 군장병들에게 불교와 불교수행의 가치를 일깨워줌으로써 군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엔진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장승락]

謹賀新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佛紀 2552년

<p>한국불교태고종</p> <p>삼 봉 사</p> <p>도 봉 합 장</p> <p>■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1리 168 TEL 033)762-8958 H·P 011-368-8957</p>	<p>한국불교태고종</p> <p>달 마 사</p> <p>주 지 혜 담 합 장</p> <p>■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5-7 흥의빌딩5층 TEL 043)253-2990 H·P 011-9423-4337</p>	<p>한국불교대승법사종</p> <p>장 업 사</p> <p>주 지 혜 선 합 장</p> <p>■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홍림리 891-1 TEL 032)937-9582 H·P 017-259-6902</p>	<p>한국불교대승법사종</p> <p>불 음 정 사</p> <p>주 지 세 정 합 장</p> <p>■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76-16 TEL 032)503-4883 H·P 011-2237-2470</p>	<p>(사)대한불교선각종</p> <p>천 불 암</p> <p>주 지 선 주 합 장</p> <p>■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247-25 TEL 032)504-5344 H·P 011-277-5344</p>	
<p>불 정 사</p> <p>주 지 묘 정 합 장</p> <p>■ 경기도 군포시 당동899 명진빌라 201호 TEL 031)454-2805 H·P 010-2776-8052</p>	<p>불 정 사</p> <p>주 지 지 혜 합 장</p> <p>■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1리 TEL 033)372-8116 H·P 011-9440-8116</p>	<p>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p> <p>각 배 반 무 상 합 장</p>	<p>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p> <p>각 배 반 진 관 합 장</p>	<p>대한불교전대종</p> <p>관 수 사</p> <p>주 지 대 석 합 장</p> <p>■ 전북 남원시 노암동 278-4 TEL 063)633-3439 H·P 010-7153-2697</p>	<p>대한불교본원종</p> <p>약 사 암</p> <p>청 산 합 장</p> <p>■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102 TEL 063)563-9791 H·P 010-9563-3390</p>